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20(土)	21(日)
흐리고 한때 비 4/8℃	흐리고 비/눈 0/6℃

News

- 전남 2곳 특구지정 ②
- 충호보고생생년타 관람 ③
- 최경주 첫날 공동 2위 ⑧

Books

- 장 지글러 '탐욕의 시대' ⑭

Entertainment

- '개콘' 인기 이유있다 ⑧

Wellbeing

- 식품 탐구 - 헛개나무 ⑬

■ 화순 제일중 인재 양성 결실

“방과 후 사이버 가정학습 사교육 없이 실력 키웠죠”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교육과 가정학습만으로 당당히 합격해 교육자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화순 제일중(교장 김상남)이 올해 고등학교 입학에서 거둔 성적은 군지역 공립 중학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화순제일중은 최근 2009학년도 고교 입시에서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우수 학생들만 지원한다는 민족사관고등학교(여·김찬미)와 서울 대원외국어고등학교(김명재), 전남과학고(김승현) 등 3명의 특목고 합격생을 배출했다.

올해 광주·전남에서 민족사관고와 대원외고 합격생은 각각 2명과 3명에 불과하다. 특히 화순 제일중 합격생들은 학원수업 등 사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교육과 가정학습만으로 합격해 농촌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화순 제일중이 신홍 명문으로 발돋움 한 데는 ▲수준별 이동수업 ▲사이버 가정학습 ▲CCAP(Cross-Cultural Awareness Program·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교실) ▲맞춤형 진학지도 등을 통한 학생지도가 효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교과부 지정 수준별 이동수업 정책학교로 지정돼 실시한 ‘수준별 이동수업’은 영어와 수학 실력을 도내 상위그룹으로 끌어올렸으며 전국 중학교의 벤치마크 대상이 됐다.

또 자체 개발한 영어·수학 학습지는 도내 중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할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화순 제일중학교 박용철 교장과 김찬미 학생, 박철우 진학부장, 김명재 학생, 김상남 교장, 김승현 학생(사진 왼쪽부터)이 교정에서 고교진학 후 학습방법 등에 관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수준별 이동 수업·맞춤형 진학 지도 등 효과 민족사관고·대원외고·전남과학고 3명 합격

민사고에 합격한 김찬미 학생은 “이동수업과 사이버가정학습이 많은 도움을 줬고, 영어는 원서 읽기를 위주로 공부했다”며 “시골학생이지만 목표를 갖고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2008년에는 도지정 사이버가정학습 정책연구학교로 선정돼 학생들에게 교과 과정의 복습과 예습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을 길러 ‘사이버가정학습 우수활용사례 공모전’ 등에서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교실”은 국제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외국인 자원봉사자 초청수업으로 영어학습 신장에 도움을 줬다.

박철우(3학년 진학부장)교사를 비롯한 3학년 교사들은 영재성이 보이는 학생들

에게 언제든지 교사와 대화하고 심화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사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과외 교사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화순 제일중은 올해 실력있는 학교로 전국에 이름을 알리면서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서 지원을 받아 인조잔디구장, 다목적구장, 우레탄 트랙 등 체육시설 공사를 지난 10월 완공해 전국 어느 학교에 뒤지지 않는 멋진 운동장과 체육시설을 갖게 됐다.

김상남 교장은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명문 중학교로의 확고한 자리매김을 위해 모든 교사들이 합심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에 생활지도 시범학교 신청을 계기로 지·덕·체를 갖춘 동량 양성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홍기자 lion@kwangju.co.kr

호남권 배제 ‘5+2 경제권’ 선도산업 확정

광주·전남 강력 반발

지경부 22일 발표 예정

정부가 ‘5+2 광역경제권’ 재편을 촉구하면서 선도산업 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광주·전남 등 ‘호남권’을 배제한 채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을 확정했다.

이는 정부가 ‘5+2 광역경제권’ 재편 불가 입장을 확인하는 한편, 호남권의 사업참여를 요구하는 사실상의 압박으로, 광주·전남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지식경제부는 ‘5+2 광역경제권’ 가운데 ‘호남권’(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6개 권역의 선도산업을 22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6개 권역별 선도 산업은 ▲수도권(지식정보산업) ▲대경권(IT융복합, 그린에너지) ▲충청권(의약바이오, New IT) ▲동남권(수송기계, 융합부품소재) ▲강원권(의료융합, 의

료관광) ▲제주권(물산업, 관광레저) 등이다. 지경부는 선도산업 확정 권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기업을 중심으로 세부 프로젝트를 마련한 뒤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선도산업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호남권’을 추후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조속히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광주·전남도가 “호남에 1개 권역(호남권)을 두고 영남에 2개 권역(대경권, 동남권)을 두는 것은 영·호남간 산업격차와 소외를 가중시킨다”며 ‘5+2 광역경제권’ 재편을 촉구하고 있어 지경부가 기존 계획대로 선도산업을 추진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광주·전남도는 정부에 ‘5+2 광역경제권’ 재편을 촉구하며 두 차례에 걸쳐 광역경제권의 핵심 사업인 선도산업 계획서 제출을 거부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관가 인적쇄신 ‘회오리’

외교부 간부 10명 사표 권고 총리실 1급 공직자들도 사의

외교통상부가 고위공무원 10여명에게 사표를 권고하고 국무총리실 일부 1급 공직자들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중앙행정부처의 인적쇄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고위공무원단 가급 간부 중 무보직 상태인 10여명의 사표를 권고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심각한 인사적체를 연내 해소해 조직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년과 향후 보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여명을 사표권고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소속 일부 1급 공직자들도 이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승수 국무총리의 부담을 덜어주고, 인사권 재량 폭을 넓히기 위해 1급 고위공직자 일부가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1급 간부들이 전원 일괄사표를 제출했으며 추가로 1~2개 부처의 1급들이 조만간 단체로 사의표명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우리키? 아이키?
성정클러닉

아모레퍼서픽이 꿈꾸던 그 아리따움이 태어납니다

ARITAUM